

제1회 동유럽 성균한글백일장

학교	카포스카르	성명	LIDIA COSSU	학년	2	생년월일	1993년 5월 29일
----	-------	----	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감사합니다. 평소에 평소에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
한다. 나에게서 물 한 병을 사면서 친구
가 건네주는 유지를 반으면서 길을 건
널 때 멈추는 차를 향해서. 그 절제 하
주에 벗 번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
하면서 정작 마음은 감사하는 느낌이
경우로는 드물다. 사실 감사라는 말은
기만으로 마음의 무척 따듯해지는 말
이다. 우리는 감사라는 말에 어떤 사랑
이나 사랑을 떠올리며 기분이 좋아진다
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자주 느끼
지는 않는다. 어머니는 항상 무엇인지
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.
과자를 구워온 이웃에게 뿐만 아니라
따뜻한 햇빛에도, 오늘 먹는 밥에도 인
제나 감사를 느끼는 엄마의 마음이 사
실은 무척 막연해서 잘 공감할 수가
없었다. 엄마가 감사를 느끼는 대상은
때로 불확실하고 그 이유도 정확하지
않았다. 고등학교를 마치고 처음으로
죽을과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 엄마가
누누히 말씀하셨던 기분이 무엇인지 조

Good

제1회 동유럽 성공한글백일장

학교	가파르키리	성명	LIDA COSU	학년	2	생년월일	1993년 5월 29일
----	-------	----	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

금 은 알 것 같 기 도 했 다 . 혼 자 서 밤 을
 먹 을 때 가 족 들 과 함 께 식 탁 에 앉 아
 9 간 도 간 소 소 한 이야 기 를 하 며 식 사 하
 던 것이 얼마 나 감 사 했 는 지 , 처 음 으 로
 혼 자 가 분 은 행 에 서 허 등 대 면 서 , 고 장 난
 전 구 를 갈 면 서 그 등 안 내 가 당 면 하 다
 여 며 왔 던 일 상 의 작 은 것 들 이 얼마 나
 감 사 한 지 를 자 자 느 껴 다 결 정 적 으 로 어
 머 니 의 말 씀 을 완 전 히 이 해 할 수 있 었
 던 건 핸드 폰 이 고 장 난 덕 분 이 었 다 . 처
 음 여 질 은 모 든 것이 불 안 해 아 무 것 도
 할 수 가 없 었 다 . 귀 에 는 항 상 이어 폰 이
 켜져 음 악 을 줄 곧 틀 렸 었 고 메 신 지 나
 S N S 로 사 랑 들 과 풍 응 있 이 연 락 을 주
 고 반 았 었 다 . 끔 찝 하 게 조 용 한 방 에 서
 하 루 는 공 공 이 생 각 해 보 니 그 오 는 것
 들 이 새 상 스 러 워 졌 다 . 책 장 에 가 득 꿈 힌
 책 들 도 책 상 위 에 놓 인 색 색 가 지 볼 펜
 도 심 지 어 입 고 있 는 옷 의 촉 감 까 지
 새 상 , 새 상 너 무 나 고 압 게 다 가 왔다 . 내
 가 처 한 상 황 과 내 가 가 지 고 있 는 것
 들 중 그 무 엇 하나 거 저 주 어 건 것
 이 하나 없 었 다 , 그 전 에 는 모 든 것 들
 이 너 무 나 쉬 워 서 , 너 무 나 당 면 해 서
 수 가 없 던 것 들 이 었 다 . 생 각 의 끝 에 서 는

